

201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개념 설명

- “한반도 오감도”는 지난 백 년의 남북을 아우르는 건축적 현상에 대한 연구로 크게 <삶의 재건-Reconstructing Life>, <기념비적 국가-Monumental State>, <경계들- Borders>, <유토피아적 관광-Utopian Tours> 네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된다.
- 세계 2차 대전 직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천 년이 넘도록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일구어 온 우리는, 냉전이 불러온 양극화된 전지구적 국가 체제 안에서 두 개의 극히 다른 개체로 갈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대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정치, 이념 체제 등에 있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트라우마와 더불어 대립구도를 보이는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종종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단순화 되어 왔다. 이런 경향은 반복적으로 클리셰(clichés)와 편견을 재생산하면서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기 어렵게 한다. 이번 전시에 시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은, 매개체(Agent)로 작용하는 남북 건축의 일상적이고 기념비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대안적인 서사를 제시한다.
- 이번 한국관 전시는, 건축가에서 시인으로 돌아선 이상(1910-1937)의 시 “오감도”에서 영감을 얻었다. 일반화되고 단일화된 조감도의 시각과 대비되는 오감도의 시각은 분단된 한반도의 건축과, 나아가서 건축 그 자체에 대한 일원화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지의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불규칙하지만 완전한 하나의 지구를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건축가, 도시계획가, 시인과 작가, 화가, 사진작가와 영화감독, 큐레이터와 미술품 수집가들의 작업들이 모여 남북 건축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들, 각각의 고유한

접근 방식들의 교점, 또 이로 인한 다양한 시각들이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전시 참여자들은 계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집단을 위한 것, 또는 영웅적이거나 일상적인 요소 등을 보여주는 한반도의 건축적 현상을 다룬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치되지만 뗄 수 없는 관계로 뒤얽혀있는 남북이 서로 주고받은 폭넓은 건축적 개입이 한반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구성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관이 선보이는 한반도는 하나의 증상(symptom)임과 동시에 매개체(agent)이고, 지난 100년간의 격동적인 역사가 낳은 원형(archetype)이자 변체(anomaly)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번 전시는 건축 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배형민 교수(시립대학교)와 안창모 교수(경기대학교)가 함께 큐레이터로서 기획하였다. 전시 참여자로는 안세권, 알레산드로 벨지오조소-Alessandro Belgiojoso, 닉 보너-Nick Bonner (featuring만수대 창작사, 저자 미상의 북한 예술가 및 건축가들), 마크 브로사-Marc Brossa, 최원준, 찰리 크레인-Charlie Crane, 막심 델보-Maxime Delvaux, 전민조, 강익중, 카롤리스 카즈라우스카스 & PLT Planning and Architecture Ltd., 김동세, 김한용, 김기찬, 김석철 & 프랑코 만쿠소-Franco Mancuso, 김수근, 이영준, 크리스 마커-Chris Marker, 필립 모이저-Philipp Meuser, 문훈, 모토엘라스티코-MOTOElastico, 오사무 무라이-Osamu Murai, 피터 노에버-Peter Noever (featuring ‘Flowers for Kim Il Sung, MAK, 2010’ 전시의 북한 건축가들), 박경 (featuring ‘Project DMZ,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1988’의 백남준과 예술가들), 제임스 파우더리-James Powderly, 신경섭, 서현석 (featuring 북한 건축가 김정희 등), 서예레, 이상, 임동우가 있다.

- 세부 전시 주제 소개

<삶의 재건-Reconstructing Life>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각기 다른 행보를 달려왔다. 전쟁 중 평양을 포함한 북한의 많은 도시는 폭격으로 인해 백지화되었고, 이곳에 집, 기관, 기념비 등을 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옛 평양이 공중폭격으로 파괴되었다면, 옛 서울의 역사적 풍경은 불도저로 파괴된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이루어진 국가주도의 성장 이후, 서울은 이른바 잡종적(hybrid) 대도시가 되었다. <삶의 재건 - Reconstructing Life>에서는 서울과 평양의 공통적인 또 각기 다른 방식의 건축적 도시재건이 어떻게 그들의 기억과 욕망의 매커니즘이 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기념비적 국가-Monumental State>

평양은 궁극적으로 기념비의 도시이다. 사회주의 이상과 주체사상으로 도시가 구성되었고, 이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북한의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건축을 정의하는데 깊게 관여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남한의 건축은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이는 사회적 이상보다는 경제적 힘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 개발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평양과의 특정한 경쟁구조 덕분에, 유사한 기념비적 환상을 재현해 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남북 근대건축의 역사는 모순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북한에서 건축가는 사회주의의 물리적 건설이라는 영웅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반면, 건축가의 작가적 위상은 최고지도자의 권위 안으로 사라졌다. 남한의 건축가는 개인적 창작의 이상에 고취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와 자본주의의 요구에 오랜 기간동안 봉사했어야 했다.

<경계들- Borders>

DMZ를 포함한 남북의 경계들은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중재되고, 가장 군사적이며, 가장 정치적인 경계들이다. <경계들-Borders>은 남북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경계들에 대한 이번 전시의 건축적 관심사를 물리적이고, 개념적이며, 감정적인 것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전시에 선보이게 되는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국가적 장치, 기업, NGO, 종교와 교육단체 등이 서로 얽혀 상호

연결된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룸을 보여준다. DMZ라는 물리적으로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라 해도 침투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래 상호연결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DMZ는 생태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과 예술적 개입으로 상상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

<유토피아적 관광-Utopian Tours>

<유토피아적 관광-Utopian Tours>은 닉 보너-Nick Bonner의 콜렉션과 커미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중국 베이징 소재의 고려그룹을 창시한 이래, 닉 보너는 북한으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영화를 제작했으며,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등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20년이 넘도록 고려그룹은 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일상적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왔다. <건설현장의 동지들-Comrades of Construction>이라는 테마로 선보이는 195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제작된 북한의 판화, 동양화, 선전 포스터는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이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닉 보너는 북한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커미션 작품을 의뢰해왔는데, 이중 <유토피아를 위한 커미션-Commission for Utopia>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북한 건축가가 상상한 환경을 탐험하는 작품이다. <건축가의 하루-A Day of an Architect>라는 제목의 만화책 또한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는데, 이 작품은 201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된 작품이다.